

\$



## O 대북한 비료지원 국민 모금운동 현황

대한적십자사가 지난 3월 15일 대북비료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한지 두달이 넘었으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같은 모금실적 저조로 당초 정부가 남북경협기금에서 제공하는 5만톤(1백80억 원 상당)과 민간모금을 통해 확보키로 한 5만톤 등 모두 1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려던 대한적십자사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.

5월 14일까지 접수된 성금은 TV방송 3사가 전화자동응답시스템(ARS)으로 모은 3억2천여만 원을 포함해 총 31억5천여만원에 불과하다.

대한적십자사는 6월 15일로 예정된 모금 마감을 앞두고 언론단체 등의 협찬을 얻어 모금활동에 마지막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있다.

통일부 관계자는 “전경련이 10억원을 성금으로 내놓기로 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재계의 동참을 기대하기 어렵다”며 “민간의 비료지원은 1~2만톤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
정부는 95년 북한에 쌀 15만톤을 지원하고도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된 데 이어 이번 비료지원마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북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.

< 동아일보 1999년 5월 15일자 기사내용 인용 >

♣ 친구들을 불신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죽을 것보다 더 속초스러운 일이다.

< 로서즈코 >